

한국(韓國)의 갑주(甲冑)
(여몽연합군(麗蒙聯合軍)의 전존유물(傳存遺物)을 중심(中心)으로)

李 康 七
(文化財專門委員)

目 次

머리말	
1. 蒙古軍의 侵入과 三別抄軍의 의거(義舉)	4. 傳存遺物의 實態
2. 麗蒙軍의 征東	가. 龍紋甲冑
가. 第一次 出征	나. 鐵冑(其의 1)
나. 第二次 出征	다. 鐵冑(其의 2)
3. 蒙古襲來繪詞에 圖寫된 裝備	라. 鐵冑(其의 3)
가. 携帶裝備에 對하여	마. 鐵冑(其의 4)
나. 甲冑에 對하여	맺는 말

머 리 말

지난해(辛酉) 12月中旬 서울신문사(新聞社) 편집국(編輯局) 문화부(文化部) 반영환(潘泳煥)부장(部長)(현(現) 편집부(編輯部) 국장(局長))의 소개(紹介)로 철제(鐵製) 투구 한 점을 감상(鑑賞)할 기록(機錄)을 가진바 있다.

전(傳)하는 바에 따르면 이 투구는 日本 東京에 소재(所在)한 한국(韓國) 연구원(研究員) 최서면(崔書勉) 원장(院長)이 최근(最近) 수집(收集)한 것으로 이는 고려(高麗) 第25代 충렬왕(忠烈王)(1274~1308在位)때 두차례에 선(宣)해 여몽연합군(麗蒙聯合軍)이 日本을 정벌하였을 때 천엽수군(千葉水軍)이 고려군(高麗軍)으로부터 노획(藪獲)하였다는 구전(口傳)과 더불어 한 日人 소장자(所藏者)로부터 양도(讓渡)받았다 한다. 하지만 당시(當時)의 유물(遺物)로는 비단(非但) 그뿐만 아니라 이미 日本 박다원구박물관(博多元寇博物館)을 비롯하여 영국(英國) 런던박물관(倫敦博物館)등에 몇점이 유전(遺傳)되며¹⁾ 또한 당시(當時)그 전투(戰鬪)에 직접 참전(參戰)한바 있는 죽기계장(竹崎季長)의 전투(戰鬪)기록(記錄)을 도사(圖寫)한 “蒙古襲來繪詞”가 유전(遺傳)되는바²⁾, 이 그림 내용(內容)에 따르면 후술(後術)하겠거니와 당시(當時)의 착장(着裝)한 갑주(甲冑)를 미루한 군장비(裝備)가 소상(昭詳)히 표현(表現)되고 있다. 물론(勿論) 그림으로 완전(完全)한 형태(形態)를 파악(把握)하기란 매우 힘겨운 일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편모(片貌)나마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터이며, 또한 전존(傳存)되는 유물(遺物)도 있고

하여 본고(本稿)에서는 다만 갑주(甲冑)에 대해서 만이 비록 우리나라의 유물(遺物)이라 단정할 수는 없으나 때의 정황을 참작(參酌) 이를 파악하여 보고(報告)자 하는 징충(徵衷)에서 감히 시도해 본 것이며, 따라서 겸(兼)하여 당시의 고려(高麗)에 처해있던 몽고의 침입(侵入)상황(狀況)과 여몽연합군(麗蒙聯合軍)의 정동실태(征東實態)에 대하여도 약술(略述)함을 머리에 밝히는 바이다.

1. 몽고군(蒙古軍)의 침략(侵略)과 삼별초군(三別抄軍)의 의거(義舉)

원태조(元太祖)³⁾ (1206~1228在位)가 무력(武力)으로 영역을 東西南北으로 확장하고 급기야는 그의 대(代)를 이은 태종(太宗)⁴⁾ (1229~1241)이 집권(執權)한지 3年제인 고종(高宗) 18(1231)年 8月 29日 몽고원사(蒙古元師) 살리태(薩里台)로⁵⁾ 하여금 압록강을 건너 함신진(咸新鎭)(의주(義州))을 포위공격(攻擊)하므로써 침략(侵略)의 첫발을 내어 디디게 되었던 것이다. 몽군(蒙軍)은 이어 철주(鐵州)(철산(鐵山))를 거쳐 구주(龜州)를 공격(攻擊)하려 하였으나 때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 박서장군(朴犀將軍)을 비롯하여 삭주분도(朔州分道) 김중온장군(金仲溫將軍) 그리고 정주분도(靜州分道)의 김경손(金慶孫)⁶⁾ (? ~1251)장군(將軍)등이 함께 구주성(龜州城)에 들어 성(城)을 사수(死守)한 까닭으로 때에 몽군(蒙軍)은 루차(樓車)를 비롯 대포차(大砲車), 운계등(雲梯等) 온갖 무기(武器)로 월여간(月餘間)에 걸쳐 공격(攻擊)하였지만 이에 대항한 아군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끝내 적을 공격(攻擊)한 까닭으로 결국 적은 구주성(龜州城)을 포기하고 그대로 남침(南侵)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몽군(蒙軍)은 이어 용주(龍州)를 거쳐 선주(宣州)(선천(宣川)), 괘주(郭州)(괘산(郭山))등을 차례로 몰락시키고 안북성(安北城)에서 크게 싸웠으나 아군은 이언문(李彦文) 장군(將軍)을 비롯한 전장병이 전사 패전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조정(朝廷)(朝廷)에서는 점차 남침하는 적의 대응책으로 민(閔) 희(曦)⁷⁾를 북계분대어사(北界分臺御使)로 삼아 강화(講和)를 의논토록 하였다. 그리하여 조정(朝廷)은 그들의 조건을 받아 들이고 강화(講和)를 체결하였으며 몽군(蒙軍)은 고종(高宗) 19(1232)年 正月 11日 달로화적(達魯花赤)⁸⁾ 72人을 두어 감시의 임무를 부여하고 철수하였다. 하지만 고종(高宗)은 마침내 중신회의(重臣會議)를 열어 항몽(抗蒙)의 결의(決意)를 굳히고 同年 6月 17日 중부를 개경(開京)에서 강화(江華)로 천도(遷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단은 몽고(蒙古)고 하여금 재침(再侵)의 구실을 삼게 하였으니 정부(政府)가 강화(江華)로 천도한 것과 一次침략(侵略) 때 각주요주현(各主要州縣)에 배치한 달로화적(達魯花赤)가 살행되거나 장비(裝備)를 탈취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철수한지 7개월만인 同年 8月 서경랑장(西京郎將)이었던 반적(叛賊) 홍복원(洪福源)(1206~1258)을 앞세우고 재침(再侵)하였지만 경기(京畿) 용인에 있는 처인성(處仁城)을 공격(攻擊)하다 승장(僧將) 김윤후(金允候)⁹⁾에게 몽장 철리대가 살해되자 지휘군을 잃은 몽군은 그대로 철군(撤軍)하게 되었다.

그 後 第 3 次 침입(侵入)은 고종(高宗)22(1235)年 윤(閏)7월에 당고(唐古)¹⁰⁾를 총지휘관(總指揮官)으로 하고 홍복원(洪福源)을 길잡이로 하여 내침(來侵)하게 되었고 이때 몽군(蒙軍)은 동왕(同王)26(1239)年 4월에 철군(撤軍)할 때까지 전국을 석권하고 도처에 막심한 피해를 주었으니 그 실례로 동왕(同王) 25(1238)年 9월에 경주(慶州) 황룡사탑(皇龍寺塔)을 불태운 것이다¹¹⁾. 이와 같이 몽군(蒙軍)의 침입(侵入)이후 전화(戰

禍)는 끊임없이 없고 지구전으로 지속되자 고종(高宗)은 同年 12월에 장군(將軍) 김보정(金寶鼎)¹²⁾과 감찰어사(監察御史) 송언기(宋彦琦)¹³⁾를 몽고(蒙古)에 보내 파병을 요청하여 이듬해 철군(撤軍)하였으나 고종 34(1247)年 7월 원사(元師) 후모간(阿母侃)이 홍복원(洪福源)을 앞세워 고주(鹽州)에 또 내침(來侵)하였지만 그이듬해 몽제(蒙帝) 정종(定宗)(1246~1248在位)이 죽음에 따라 철군(撤軍)하였다. 第 4 次는 고종(高宗) 40(1253)年 7월에 주장(主將) 야굴(也屈)은 질자(質子) 영녕공(永寧公 준(綽)¹⁴⁾ 을데리고 홍복원(洪福源)을 길잡이로 하여 침입(侵入)하였는데 때에 몽제(蒙帝) 헌종(憲宗)의 조서로써 고종의 개경환도(開京還都)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몽군(蒙軍)은 때에 동주성(東州城)(춘천), 양근성(楊根城)(양평), 양주성(襄州城)(양양) 등을 차례로 공략하고 충주성(忠州城)에 이르렀으나 때에 충주성(忠州城)에는 방호별감(防護別監) 김윤후(金允候)가 수장으로써 전 장병과 더불어 방어에 진력한 보람있어 70餘日이나 몽군(蒙軍)이 공격(攻擊)하였지만 끝내 점령하지 못한채 그대로 철군(撤軍)하였다.

第 5 次는 고종 41(1254)年 7월이었다. 몽고군(蒙古軍)의 총지휘관(總指揮官)은 원사(元師) 차라대(車羅大)로서 때에도 홍복원(洪福源)을 길잡이로 하여 병력 5千餘로 내침(來侵)하였다. 그래서 조정(朝廷)에서는 전라(全羅) 경상지방에서 강도(江都)의 수비를 위해 야별초(夜別抄)를 모집하여 방어임무를 수행케 하는 한편 광주(廣州)를 거쳐 괴주성(槐州城)(괴산)에 침입(侵入)한 몽고군을 별초(別抄)에 의해 격파케 하기도 하였으니 각지에서의 별초(別抄)의 활약은 두드러진 현상이었다.

第 6 次는 고종 45(1255)年 4월이었다. 때에도 몽군원사(蒙軍元師) 차라대(車羅大)는 홍복원(洪福源)을 대동(帶同)하고 그해 10월 충주에서 크게 격파당했지만 전라지방까지 공략했었다.

第 7 次는 고종 44(1257)年 正月 조정재추회의(朝廷宰樞會議)에서 몽고에 보내는 춘례(春禮) 진봉(進奉)을 정지한 까닭으로 몽고정부(政府)에서는 또 이에 분개하여 침공의 구실로 삼아 또다시 차라대(車羅大)를 총지휘관(總指揮官)으로 삼아 내침(來侵)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조정(朝廷)에서는 시어사(侍御史) 김수강(金守剛)을 사신으로 삼아 몽고에 보냈던바 몽제(蒙帝) 헌종(憲宗)(1251~1259在位)이 남송(南宋)을 정벌중에 있었으므로 행영(行營)까지 찾아가 철군(撤軍)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몽고사신과 같이 돌아와 철병(撤兵)하였으나 그들은 서북경내(西北境內)로 그 부대(部隊)를 이동하였고 몽고원사(元師) 차라대(車羅大)는 개경(開境)에 주둔(駐屯)하면서 王子를 볼모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同王 46(1259)年 4月 王子 전(僖)(1219~1274)이 원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 때마침 남송(南宋)에 출정 중이던 몽제(蒙帝) 헌종(憲宗)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전(僖)은 헌종(憲宗)의 동생 흘필렬(忽必烈)(後日 세조(世祖) : 1260~1294在位)를 만나 그 후 함께 있었으나 그 이듬해 2月 부왕(父王)의 부음(訃音)을 듣고 귀국하여 4월에 즉위(即位)하니 구거 第24代 원종(元宗)(1260~1274在位)이다. 한편 몽고에서도 헌종(憲宗)의 제(弟)인 흘필렬(忽必烈)이 그해 3월에 황제의 위(位)에 오르게 되어 그후부터 양국사이의 전쟁상태(狀態)는 종식(終息)하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高麗)조정(朝廷)에서는 이에 앞서 실권자 최항(崔沆)(?~1257)이 죽자 그의 아들의(嬪)(?~1258)기 교정별감(敎定別監)이 되어 정방(政房)을 인수하였으나 정치에 어두어 실정(失政)한 까닭으로 고종45(1258)年 대사성(大司成) 유경(柳 璈)¹⁵⁾(1211~1289) 낭장(郎將) 김준

(金俊)(?~1268) 박송자(朴松庇)(?~1278) 추밀원사(樞密元使) 최온(崔溫)등이 삼별초(三別抄)를 동원 그를 죽이고 실권(實權)을 왕에게 돌리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준(金俊)이 명목상 실권을 고종에게 돌려드리는 하나 자신이 정권을 전횡(專橫)하게 되자 원종(元宗) 9(1268)年 12月 임연(林衍)(?~1270)은 김경(金境)은 (?~1268) 최온(崔溫)등과 함께 김준(金俊)을 살해하고 말았다. 임행(林行)은 그 후 실권자가 되어 同王 10年 6月에 王을 폐위시켜 별궁(別宮)에 두고 원종(元宗)의 동생 안경공(安慶公) 창(滄)을 王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사실(事實)은 元나라에 가 있다 同年 7月 귀국길에 파파부(婆婆府)에 이르렀던 왕세자(王世子) 심(諶)(후에 충렬왕 : 1274~1308)에게 알려져 그는 元나라에 다시 돌아가 세조(世祖)에게 그 사실(事實)을 보고(報告)하여 원나라의 간섭으로 원종(元宗)은 同年 11月에 복위하였고 이어 同年 12月에 원나라에 간 원종(元宗)은 다음해 5月 27日 귀국하였는데 때에 그는 元나라의 힘을 빌어 임연(林衍)을 제거할 것과 개성(開城)으로 정부(政府)를 환도(還都)할 것을 추진하였던 바 임연(林衍)은 이를 미리 알고 항거계획을 추진하던중 원종(元宗) 11年 본에 병몰(病沒)하였고, 이어 그의 아들 유무(惟茂)(?~1270)가 교정별감(敎定別監)이 되어 실권을 장악하고 정부(政府)의 출육명령(出陸命令)에 항거하였으나 同年 5月 14日 홍규(洪奎)¹⁶⁾(?~1316)에 의해 참살(斬殺)되고 말았다.

원종(元宗)은 상장군(上將軍) 정자여(鄭子璵)(?~1276)를 강도(江道)에 파견하여 삼별초군(三別抄軍)의 항몽(抗蒙)과 출육반대(出陸反對)를 달랬으나 그들은 끝내 거역 하였으므로 원종(元宗)은 다시 상장군(上將軍) 금지저(金之底)를 강화에 파견하여 삼별초(三別抄)를 폐지하고 병적(兵籍)을 압수하므로서 이것이 삼별초(三別抄)의 군란이 발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리하여 원종(元宗) 11(1270)年 6月 1日 배중손(裴仲孫)(?~1271)은 야별초지유(夜別抄指諭) 노영희(盧永僖)와 더불어 왕손인 승화후(承花候) 온(溫)¹⁷⁾(?~1271)을 王으로 삼고 관부(官府)를 새로이 설치하였는데 大장군(將軍) 유존혁(劉存奕), 상서좌승(尙書左丞) 이신손을 좌우승선으로 삼았다⁸⁾. 그러나 그들은 강화(江華)에서는 더 이상 능(能)히 지키지 못할 것을 판단하고 지리적으로나 작전(作戰)에 유리한 곳을 찾아 이동할 것에 합의 同月 3月 배를 모아 공사(公私)의 재물과 자녀를 모두 배에 적재하고 南쪽으로 향해내려가는데 그의 선박의 행렬은 구포(仇浦)로부터 항파강(缸破江)에 미쳤는바 배의 머리와 그 꼬리는 서로 이어졌고 그의 수(數)는 1千餘소(艘)에 달했다고 한다¹⁹⁾.

한편 조정(朝廷)에서는 김방경(金方慶)으로 하여금 역적추토사(逆賊追討使)를 삼아 관군(官軍) 60여명을 지휘하게 하고 몽군(蒙軍) 송만호(宋萬戶)의 군사 1千여명으로 하여금 삼별초군(三別抄軍)을 추격하여 영흥도(靈興道)에서 접전(接戰)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²⁰⁾ 그 후 삼별초군(三別抄軍)은 지리적으로나 지형적(地形的)으로 작전(作戰)에 유리한 진도(珍島)에 同年 8月 19日에 도착 상륙(上陸)하여 근거지로 삼게 되었다.

그 후 9月에는 양동무(楊東茂) 고여림(高汝霖)등과 또한 김방경(金方慶)을 전라추토사(全羅追討使)로 그리고 몽고원사(蒙古元師) 아해(阿海)와 연합(聯合)으로 공격(攻擊)케 하였고, 또한 12月 22日에는 전열(戰列)을 재편성하여 재공격(攻擊)하였지만 삼별초(三別抄)의 사기는 꺾일줄 몰랐다.

한편 조정(朝廷)에서는 수차(數次)에 환(巨)한 작전(作戰)에도 실패를 거듭하자 同月 20日경에는 원외랑(元外郎) 박천주(朴天澍)와 몽사(蒙使)두원외(杜員外)로 하여금 王의

유지(諭旨)와 삼별초(三別抄) 회유에 관한 몽고의 국서등(國書等)을 삼별초진(三別抄陣)에 보냈으나 그들은 조서(詔書)는 천주(天澍)에게 돌려주고 말하기를 “이 조서는 나에게 유시(諭示)한 것이 아니니 敢히 받을수 없다”하고 다만 우리 국서(國書)에 대한 회답에서는 “命하는 대로 쫓겠습니다”라고 하며 몽사(蒙使)는 그 곳에 억류(抑留)하고 박천주(朴千州)만이 풀려 돌아 왔다²⁰⁾ 그리하여 원종(元宗)(元宗) 12(1271)年 正月 새로운 작전(作戰)계획을 수립하였으니 우선 몽군(蒙軍)의 지휘관(指揮官)은 아 해(雅海)의 후임으로 혼도(忻都)로 하여금 지휘하게 하고 병력 6千과 현 병선 260여소외에 140소를 더 증원하여 모두 400소(艘)에 달했고 또한 병력이 부족하여 문무산직(文武散職)을 비롯한 백정잡색(白丁雜色) 승도(僧徒)에 이르기까지 징집하였으며 몽군(蒙軍지원군)으로는 홍다구(洪多丘)가 지휘관(指揮官)이 되어 내원(來援)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려원군(麗元軍)은 同年 5月 15日을 기(期)해 부대(部隊)를 삼군(三軍)으로 재편성하여 진도(珍島)주둔(駐屯)의 삼별초군(三別抄軍)을 포위공격(攻擊)하였던 바 그들은 주력부대(部隊)인 중군(中軍)을 제압하기 위해 병력을 벽파정(碧波亭)부근에 집중배치한 까닭으로 오히려 좌군(左軍)을 지휘한 홍다구(洪茶丘)이 부대(部隊)가 측면공격(攻擊)에서 전선(戰線)이 격파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삼별초군(三別抄軍)을 지휘한 배중손(裴仲孫)이 전사하고 1萬여명의 남녀를 비롯 양곡(糧穀) 4千여석(餘石) 그리고 전선(戰船) 수(數)10소(艘)을 전리품으로 거둘 수 있었다.

한편 여몽군(麗蒙軍)이 진도(珍島)의 삼별초군(三別抄軍)을 소탕하고 있을 무렵 즉 원종(元宗) 11年 9月 전라안찰사(全羅按察使) 권단(權坦)(1228~1311)은 영암부사(靈岩府使) 김수(金須)(?~1272)에게 병력 2百을 주어 삼별초군(三別抄軍)이 제주(濟州)에 들어오는 것에 대비 출동시켰고 뒤이어 고여림(高汝霖)장군(將軍)도 병력千名을 거느리고 제주에서 김수(金須)의 병력과 ds합하여 방어에 임하였다. 그러나 同年 11月초3日 삼별초(三別抄)의 별장(別將) 이문경(李文京)은 별초군(別抄軍)을 이끌고 명월포(明月浦)에 상륙하여 동제원(東濟院)에 포진(布陣)하고 관군(官軍)과 대전(對戰)한 결과(結果) 관군(官軍)의 김수(金須), 고여림(高汝霖)등 전장병이 전멸되고 말았다. 이 전투(戰鬪)에서 승리한 이문경(李文京)은 진도본영(珍島本營)에 전승(戰勝)의 결과(結果)를 보고(報告)하고 지리적으로 수륙(水陸) 교통의 요충지인 조천포(朝天浦)에 방어능세(防禦能勢)를 갖추었던 것이다.

또한 진도전투(戰鬪)에서 패전한 별초군(別抄軍)의 잔여병력을 이끌고 제주에 도착한 것은 원종(元宗) 12(1271)年 5月 하순경 김통정(金通精)(?~1273)장군(將軍)이었다. 그리고 뒤이어 남해현(南海縣)을 거점으로 활약하던 유존혁(劉存奕)(?~1273)장군(將軍)이 배 80여소(餘艘)을 이끌고 따라와 합류하였는바 그들은 처음 성산면 고산리에 석축(石築)을 쌓고 유사시에 대비하려 하였으나 지형적(地形的) 조건이 불합리하여 북제주군 애월면 고성(古城)으로 본진(本陣)을 삼고 차후 작전(作戰)에 대비, 방어시설을 갖추기에 전력을 다하였다.

하편 조정(朝廷)에서는 원종(元宗)13(1272)年 11月 병력을 재편성하였는년 원군(元軍)에서는 혼도(忻都)와 홍다구(洪茶丘)를 지휘관(指揮官)으로하여 둔전군(屯田軍), 한군(漢軍) 각 2千名이 착출되고, 관군(官軍)측에서는 김방경(金方京)으로 행영중군병마원사(行營中軍兵馬元師)로 삼아 병력 6千명과 수수(水手) 3千명등 여몽(麗蒙)연합(聯合)하여 모두 1萬 3千명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여몽군(麗蒙軍)은 원종(元宗) 14年 2月에 번남현(蕃南縣)(나주군)에 집결부대(部隊)를 삼군(三軍)의 부서로 재편성하여 4月初순 도해(渡海)

작전(作戰)을 강행한 결과(結果) 때마침 거센 풍랑을 만나 일부병력을 제외한 1萬여병력만이 4月 28日 새벽 제주에 상륙하였는바 여기에서 관군(官軍)은 함덕포(咸德浦)를 위시하여 명월포(明月浦) 군항포(軍港浦)와 파군봉(破軍峰) 구리고 홍파두성(紅坡頭城)에서 완강히 대항하는 별초군(別抄軍)을 완전히 소탕하기에 이르렀으니 병력과 장비(裝備)에 열등한 별초군(別抄軍)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으나 최후까지 분전(奮戰)하여 전원이 옥쇄(玉碎)를 써 장렬히 순국(殉國)하였던 것이니²²⁾ 이로써 원종(元宗)11(1270)年6月 1日 강화(江華)에서 굴욕적인 강화(講和)에 대항하여 봉기(蜂起)한 삼별초군(三別抄軍)은 3年여동안 제한된 병력과 보잘 것 없는 장비(裝備)로써 중국대륙과 중앙아세아를 석권(席捲)한 몽군(蒙軍)을 상대로 항전하였음은 오로지 민족정신의 발로(發露)였다고 여기는 터이다.

2. 여몽군(麗蒙軍)의 정동(征東)

가. 第1次 출정(出征)

원나라에서 일본(日本)을 공략코자 합포(合浦)(마산)에 정동행성(征東行省)을 설치한 것은 원종(元宗) 15(1274)年 正月이었다.²³⁾ 이에 앞서 원정군에서는 원종(元宗) 7(1266)年 11月 사신 흑적(黑的)을 고려(高麗)에 보내와 일본(日本)에 양도할 것을 요구한 까닭으로 때에 추밀원부사(樞密院副詞) 송군비(宋君斐)등을 함께 보냈으나 항해도중 풍랑을 만나 거제도에 있다가 그 이듬해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한채 그대로 돌아오고 말았다.²⁴⁾ 이어 同年 8月에 재차 반부(潘阜)로 하여금 통화(統和)의 조서(詔書)와 고려(高麗)의 국서(國書)를 가지고 일본(日本)에 갔으나 조서의 내용(內容)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답서(答書)를 받지 못한채 그대로 돌아 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일은 원종(元宗) 12(1271)年 正月에 원사(元使) 조량필(趙良弼), 서장관(書將官) 장 탁(張鐸), 그리고 고려(高麗)조정(朝廷)에서 보낸 강윤소(康允紹)등에게도²⁵⁾ 같은 방법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원나라에서는 일본(日本)정벌을 결심하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정벌계획은 · 원종(元宗) 15(1274)年 12月初부터 준비를 서둘러 7월에 수행하려 하였으나 6月 18日에 원종(元宗)이 몽서(蒙逝)하고 이어 충렬왕이 8月25日 원나라에서 돌아와 즉위하는 등의 일로 말리암아 부득이 10月로 연기하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동(征東)에 사용될 선박에 있어 그 조선(造船)은 고려(高麗)에서 담당하게 하였는바 그 소요의 선척을 건조한 결과(結果)를 同年 6月16日 字 라 유(羅裕)로 하여금 중서성(中書省)에 보고(報告)된 내용(內容)에 따르면

「今年正月初三日伏蒙朝旨打造大船百艘即行措置遣紀樞密元副使許珙於全州道邊山左僕射洪
 금년정월초삼일복몽조지타조대선백소즉행조치건기추밀원부사허공어전주도변산좌복사홍
 祿適於羅州道天冠山備材又以侍中金方慶爲都督使，管下員將亦皆精揀所須契匠物件竝於中外
 嶽주어나주도천관산비재우이시중금방경마도독사 관하원장역개정간소수부장물건병어중의
 差委催督應副正月十五日聚齋十六日超役至五月晦告畢船大小并九百隻造訖合用物件亦皆圓備
 차위최독응부정월십오일취제육일초역지오월회고필선대소병구백척조홀합용물건역개원비
 今三品官能幹者分管迺迫已向全州(金海)伏望諸相國善爲敷奏」

금삼품관능간자분관회박이향전주(김해)복망제상국선위부주

라 한바와 같이 正月 초 3日에는 대선(大船) 3百확(艘)을 건조케 하였는데 비해 5月 말 경에는 대소선(大小船) 합하여 9百확(艘)으로 보고(報告)되었다는 사실(事實)이고, 또한 그 선형(船形)에 있어서는 「천료주발도로경질주급수소주(千料舟拔都魯輕疾舟汲水小舟)」²⁶⁾라 하였는바 즉 이 천료주(千料舟)는 1千석을 적재할 수 있는 대선박을 뜻하는 것이며 또한 그 모양은 고려사 김방경전(金方慶傳)에 보이듯이 「조선약의만양(造船若依蠻樣)」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출정준비가 완료된 여몽군(麗蒙軍)은 10月 초 3日로 그 본진(本陣)인 합포(合浦)를 출발(出發)하게 하였으니 때에 군편제를 살펴보면 도독사(都督使) 김방경(金方慶)(1212~1300)으로 하여금 중군장(中軍將)을 삼아 박원량(朴元亮)(?~1292)과 김 혼(金 恂)(1251~1390)은 지병마사(知兵馬使)를. 임 개(任 愷)는 부사(副使)를 삼았으며, 김 신(金 旿)(?~1274)은 좌군사(左軍事)를 삼고 위득유(韋得儒)(?~1274)는 지병마사(知兵馬使)를. 손세정(孫世貞)은 부사(副使)로 삼고 김문비는 우군사를 삼고 나유(?~1229)와 박보는 지병마사를, 반부는 부사를 삼아서 이를 이름하여 삼익군(三翼軍)이라 칭하였던 것이다. 한편, 원군측에서는 도원사(都元師)에 홀(忽) 돈(敦), 좌부원사(左部元師)에는 유부형(劉復亨), 우부원사(右部元師)에는 홍다구(洪茶丘)를 삼아 원 한군(元 漢軍) 2萬5千名, 그리고 고려군(高麗軍) 8千名에 배사공과 수군 인도수(引導手) 6千7百여명으로 편성이 되었던 것이다.²⁷⁾ 그리하여 편성된 부대(部隊)는 同年 10月 초 3日 합포(合浦)(마산)을 출발(出發)하여 同月 초5日에는 대마도(對馬島)에 이르러 팔번궁(八幡宮)의 단전(段殿)을 그리고 西쪽의 좌수포(左須浦)에까지 침공하고 일단 그곳에 부대(部隊)가 주둔(駐屯)하였다가 이어 14日에는 일기도(壹岐島)를 공격(攻擊)하여 접전한 결과(結果) 아군은 왜군을 約 1千여급을 격살(擊殺)하는 결과(結果)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어 同月 19日에는 박다만(博多灣)을 거쳐 20日 아침에는 금진(金津), 백도원 박다등지(百道原博多等地)에 상륙하였는바 때에 특히, 고려군(高麗軍)은 녹원(鹿原)에서 적판(赤坂)에까지 공격(攻擊)하여 분전(奮戰)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여몽군은 저녁에 부대(部隊)를 철수하여 모두 본선(本船)에 복귀하였던 것인데 마침 그날 저녁부터 일기 시작한 구풍(颶風)으로 말미암아 전선(戰船)은 모두 암애(岩崖)에 부딪쳐 3百여척이 파손된 것은 물론, 병력도 1萬3千5百여명이나 손실하는 막대한 피해를 가져 왔다.²⁸⁾ 따라서 고려군(高麗軍)측에서는 좌(左)군사 김 신(金 旿)이 전사하였고 몽군(蒙軍)측에서는 좌부원수 류부형(劉復亨)이 유실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등의 참사를 빚었다. 그리하여 여몽연합군(聯合軍)은 전의(戰意)를 상실한 본(本)을 석권하려는 원나라의 욕망은 한낱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막대한 인력과 군비만이 피해를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이 전투(戰鬪)에서 복귀한 연합(聯合)군은 피로(被虜)한 동남녀(童男女) 2百여명을 王과 공주에게 헌상(獻上)한바 있다.²⁹⁾

나. 第 2 次 출정(出征)

第1次 원정에서 소기(所期)의 목적달성을 실현하지 못한 원나라에서는 다시금 정동(征東)계획에 착수하였으니 그 이듬해(충렬왕 元年 : 1275) 10月 25日에는 김광원(金光遠)으로 하여금 경상도도지휘사(都指揮使)를 삼아 전함수조(戰艦修造)를³⁰⁾ 시행케 하는 한편 同年 11月에는 기거랑(起居郎) 김 제(金 磾)를 경상, 전라에 보내 전우(箭羽)와 죽철(鍔鐵)을 거두어 들이게 하였으며³¹⁾ 동왕(同王) 3(1277)年 2月에는 중서성공문에 의

거 각도로 하여금 화살을 만들게 하여 군기(軍旗)별감을 보내 검열한 후 경산부(경북성주)와 석주(황해연안)에 각각 보관케 하였고³², 또한 동년(同年) 4월 8일에는 충주에서 환도를 주조케 하기도³³ 하였던 것이다.



※ 挿圖：博多灣 周圍圖

※ 삽도(挿圖) : 박다만(博多滿) 주위도(周圍圖)

한편 원조정(朝廷)에서는 1279(至元 16)年 2월 7일에 이르러 강남사성(江南四省)에 대해서도 조선(造船)하게 조치를 취하였으니 즉(卽) 「이정일본척양주(以征日本敕揚州)·호남(湖南)·공주(贛州)·천주사성조선선육백소(泉州四省造戰船六百艘)」라³⁴ 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同年 6월 25일 고려정부(政府)에 대해서도 동정원수부(東征元帥府)로부터 전함조선통첩(戰艦造船通牒)을 보냈으니 즉 「동정원수부승성지령조선함구백소(東征元帥府承省旨令造戰艦九百艘)」³⁵ 라 한 것으로 볼 때 강남(江南)과 고려(高麗)에 대하여 각각 전함조선(戰艦造船)을 서두르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부담은 결국 강남군(江南軍)에서 넘함 3千 5백소(艘)와 병력 10萬명을 담당하게 하였고³⁶ 한편 고려(高麗)측에서는 전함 9百소(艘)를 비롯 초공(梢工) 수수(水手) 1萬 5千명과 정군(正軍) 1萬명³⁷ 그리고 군량미 11萬석에 이르렀다.

한편 충렬왕은 同王6(1280)年 8월에 정동(征東)업무관계로 원나라에 갔을 때 혼도(忻都), 홍다구(洪茶丘), 범문호(范文虎)등이 세조로부터 이미 정동(征東)작전(作戰)계획에 대한 지시받은바 있는바 그 내용(內容)에 의하면 혼도(忻都), 다구(茶丘)는 고려(高麗), 몽한군(蒙漢軍) 4萬을 거느리고 합포(合浦)를 떠나며 범문호(范文虎)는 만군(蠻軍)을 10萬명을 총지휘하여 강남에서 출발(出發)하여 양군(兩軍)이 모두 일기도(壹岐島)에서 집결하여 연합(聯合)으로 일본성을 침공하게 하였으나 실제작전(作戰)수행에는 후술하겠거니와 많은 차질을 가져 왔다.

한편 충렬왕은 원나라에서 세조(世祖)에게 정동(征東)계획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의

건을 품신(稟申)하였으니 이에는

첫째 : 탐라(耽羅)에서 진무(鎭戍)하는 우리군사를 정동(征東)하는 군사에 보(補)할 것
둘째 : 고려인, 한인(漢人)의 군사수(軍士數)를 감소하고 도리첨목아(闍里帖木兒)를 시켜 몽고군을 더 발(發)하게 할 것

셋째 : 다구(茶丘)의 관직(官職)을 더 올리지 말고 성공하기를 기다려서 상을 주며 또 도리첨목아(闍里帖木兒)로 하여금 신(臣)과 함께 정동성(征東省)의 사무를 보게 할 것

넷째 : 소국군관(小國軍官)들에게 패면(牌面)을 사하여 줄 것

다섯째 : 상국의 연해지방 사람도 모두 사공, 수부(水夫)에 충당할 것

여섯째 : 안렴사(按廉使)를 보내더 백성들의 고통을 조사할 것

일곱째 : 신(臣)이 직접 합포(合浦)에 가서 군사를 검열하게 할 것

등이었다³⁸⁾ 그리하여 그는 同王 7(1281)年 9月 1일에 서울을 떠나 同月 15日에는 합포(合浦)에 행행(幸行)하여 18日에는 성대(盛大)히 전군(全軍)을 열병(閱兵)하여³⁹⁾ 위엄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몽군은 김방경을 비롯한 혼도, 다구, 박구(朴球), 김동정(金同鼎)등이 주사(舟師)지휘관(指揮官)이 되어 5月 4日⁴⁰⁾ 합포(合浦)를 출발(出發)하여 同月 26日에는 전군(全軍)이 대기도(臺岐島)를 향해 진격하던 中 풍랑을 만나 선군(船軍) 113명과 초군(梢軍) 36명이 실종 되는 참사를 빚었고⁴¹⁾ 따라서 27日에는 일본(日本)의 세계촌 대명포(大明浦)에 침공하여 격문(檄文)으로 그들을 효유(曉諭)하기로 하였다.⁴²⁾ 이어 정동군은 대마도에 이어 6月 5日까지의 8, 9日간은 일기도해상에서 왜군과 접전하였고, 이어 북강만(福岡灣)에 침입(侵入)하여 지하도(志賀島)를 점령하려 하였으나 왜군의 반격으로 인해 6月 13日에는 응도(應島)를 후퇴하여 일기도(壹岐島)에 주둔(駐屯)하는 동안 그곳에 도착예정이었던 강남군(江南軍)의 내원(來援)을 대기하였던 것이다.

한편 강남군(江南軍)에서는 총지휘관(總指揮官)으로 아탑해(阿塔海)와 범문호(范文虎)인데 최초에는 아자한(阿刺罕)과 범문호였으나 아자한의 신병으로 말미암아 아탑해(阿塔海)와 교체하였다. 또한 여몽군(麗蒙軍)과의 집결지로 최초에 타합(打合)되기는 연경(燕京)에서 정동제장(征東諸將)이 추밀원(樞密院)과의 회합때는 경남 김해에서 집결하기로 하였으나 그곳은 풍수가 불편함이 인정되어 새로이 결정한 곳이 일기도였던 것이다. 허나 강남군(江南軍)의 정남행성참의(征南行省參議)였던 배국좌(裴國佐)는 일본(日本)에서 표저(漂著)한 사람의 말을 듣고 평호도(平戶島)가 위치상으로는 지형적(地形的)으로 일기도보다 유리한 것에 착안 원나라 세조에게 품신 집결지를 평호도로 갱신하게 되었다.⁴³⁾ 그리하여 강남군(江南軍)은 6月 18日을 기해 그곳 경원 부근에서 출발(出發)한 후 6月 29日경에야 선발대가 여몽군과 연합(聯合)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합동작전(作戰)으로 일기도(壹岐島)를 공격(攻擊)하였으며 7月 2日에서야 비로소 주력부대(部隊)가 합류하여 평호도(平戶島)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그후 7月 27日에는 此後 작전(作戰)에 대비 응도(應島)로 전함대를 이동하였으나 8月初 1日 밤 第 1 次 원정때와도 같이 구풍(颶風)이 일어 모든 전선(戰船)이 파손되고 많은 병력을 잃게 되었던 것으로 고려사 충렬왕 7年 신사(辛巳) 6月 임신조(壬申條)에 의하면 「만군개익사(蠻軍皆溺死)」⁴⁴⁾라 하였지만 그후 同王 8年 임오(壬午) 6月 1日 조(條)에 만군총파심청(蠻軍總把沈聽)등 6人이 일본(日本)으로부터 귀환하여 제보한바에 따르면 때에 생존자 중에서 공장(工匠)과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처형하였다⁴⁵⁾ 하며, 한편 고려군(高麗軍)은 때에 7, 592명⁴⁶⁾의 손실을 보았던 것이다.

3. 몽고 습래회사(襲來繪詞)에 도사(圖寫)된 장비(裝備)

이 그림은 1293(일본정응(正應) 6)年 2月 9日 당시 2次에 선(巨)한 여몽(麗蒙) 연합군(聯合軍)을 맞아 참전한바 있는 죽기계장(竹崎季長)이 그의 전공(戰功)상황(狀況)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당시의 화사(畫師) 장륙장장(長陸長章) 부자로 하여금 도사(圖寫)케 한 것이다.⁴⁷⁾

회사(繪詞)⁴⁸⁾ 내용(內容)에 의하면 이 그림은 2축(軸)의 두루마리로써, 그의 첫 두루마리에는 第 1次때 즉 1274年 10月 여몽군의 공격(攻擊)을 받고 계장(季長)의 출진으로부터 행군과 휴식 그리고 그의 분전(奮戰)상황(狀況)을 내용(內容)으로 하였으며 끝무렵에는 그의 훈공(勳功)을 겸장막부(鎌倉幕府)에 보고(報告)하고 그 군공(軍功)을 인정받는 장면(場面)등이 묘사(描寫)되었고, 또한 둘째 두루마리에는 第 2次 여몽(麗蒙) 연합군(聯合軍)의 공격(攻擊)을 받고 부상한 하야통유(河野通有)를 문병(問病)하는 것으로부터 전함에 승선하여 우군과 전장(戰場)으로 향하는 장면 그리고 해상에서의 격전 하는 등의 내용(內容)을 도사(圖寫)했다.

따라서 본고(本稿)는 머리에서도 이미 밝힌바 있듯이 당시 여몽군이 착장(着裝)한 갑주(甲冑)에 대하여 그 형태(形態)나마 규명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려 하거니와 당시 개인이 휴대한 장비(裝備)에 대하여도 살피려하나 이는 그림상으로 여몽군(麗蒙軍)의 구별을 분간하기 어렵고 또한 그 맨드리에 있어서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그림에 묘사(描寫)된 바를 다음에 알아 보기로 한다.

가. 휴대장비(裝備)에 대하여

이 그림에 묘사(描寫)된 내용(內容)에 따르면 第 1次때에는 계절적으로 동계(冬季)임과 동시에 육전(陸戰)상황(狀況)을 주제로 도사(圖寫)하였다.

우선(于先) 第一次 육전(陸戰)의 내용(內容)을 살펴보면 당시의 주무기였던 궁시(弓矢)를 비롯하여 과(戈)·극(戟)·모(矛)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더욱 허리에는 환도를 드리웠는데 이는 칼집(초(鞘)) 리구(鯉口)쪽으로 도대(刀帶)를 쌍조(雙條)로 상하에 연결(連結)하여 늘어뜨린 형태(形態)이다. 또한 활은 일군(日軍)에 비해 짧은 형이고 따라서 중앙부 좀통부분이 휘어진 것이 특이하고, 또한 허리에 늘어뜨린 전통(箭筒)은 일군(日軍)의 등(背)에 멘 것과 대조적이라 하겠고, 더욱 고려사(高麗史)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궁시(弓矢)와 환도(還刀)를 지원한바 있다.⁴⁹⁾ 주목되는 것은 화약병기(火藥兵器)의 일종인 철폭(鐵砲)에 관해서인 바 때에 여몽연합군(聯合軍)은 현금(現今)의 수류탄과 같은 철폭(鐵砲)을 사용한바 있다. 이는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총통(銃筒)에 의해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임란(壬亂)때 사용한바 있는 진천뢰(震天雷)와 같은 화기(火器)이다. 즉 철로 겉을 싸고 속에 화약을 장진하여 화승(火繩)에 점화하여 목표물에 대하여 투척발사(投擲發射)하는 것으로 때에 일군(日軍)으로서는 처음 보고(報告) 당하는 신무기였던 것이며 이는 또한 겉을 흙으로 싸서 사용하는 것은 자포(磁砲)라고 한다.⁵⁰⁾



그림 1. 鹿原에 陣을 친 蒙古軍

그림 1. 녹원(鹿原)에 진(陣)을 친 몽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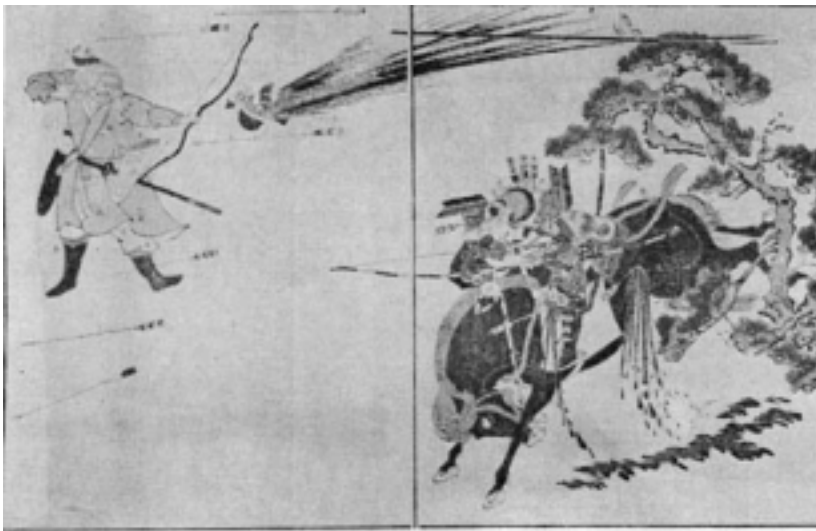


그림 2. 鐵砲에 命中된 李長의 愛騎

그림 2. 철포(鐵砲)에 명중(命中)된 이장(李長)의 애기(愛騎)

따라서 그림 내용(內容)에 따르면 몽고군이 투척한 철포(鐵砲)가 계장(季長)의 애기(愛騎)에 명중되어 복부전체에서 유혈(流血)이 심해 고전하는 것을 볼수 있다. (그림 2 참조) 그렇다면 때에 고려군(高麗軍)에서는 몽군(蒙軍)과 연합(聯合)하여 작전(作戰)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모름지기 그 화약병기(火藥兵器)에 대해 습지(習知)하였을 것이나 그에 대한 기록(記錄)의 흔적이 아직 연구부족의 탓인지는 몰라도 개발한 근거를 찾아 볼수 없고 다만 그후 공민왕(恭愍王) 5(1356)年 9월에 문무관 승문관(崇文館)에 참집(參集)시켜 서북면방어장비(西北面防禦裝備)를 검관(檢關)할 때 총통(銃筒)을 남강(南岡)에

서 발사한 기록(記錄)을 볼 수 있으나⁵¹⁾ 이것이 그 후에 화기(火器)사용의 첫 기록(記錄)으로 여겨진다.

또한 그 후 1281年 5월에 있었던 第2次 출정때에는 전반에도 그러하였듯이 군선(軍船)준비는 고려측에서 900여척을 건조하였었다. 때의 선형(船形)을 본회사에 묘사(描寫)된 바를 일부 살펴보면 로루(艙樓)를 설치하여 군기(軍旗)를 좌우(左右)에 세우고 선저(船底)에서 좌우(左右)를 살펴 대전(對戰)할 수 있도록 좌우형에는 창구(窓口)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이물(선수(船首))에서 고물(선미(船尾))로 연(漣)하는 지점까지는 갑판을 설치하였고 중앙에는 화도각(火燭却)이 일렁이는 군기(軍旗)를 세운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선체(船體) 내외(內外)에는 선식(船飾)을 화려하게 시문(施紋)하여 군의 위엄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장비(裝備)에 있어서는 第1次때와 별차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방패(防牌)가 장방형으로 머리는 화판형(花瓣形)에 만자문(卍字紋)이 수식(修飾)되고 그리고 네모꼴의 구멍을 뚫은 것 또한 원문(圓汶)을 그린 것 등을 볼 수 있다. 이어 고금(古今)을 통해 부대(部隊)의 상징으로 여기는 군기(軍旗)에 대해서 알아보면 육전(陸戰)에서는 단(單)한점을 묘사(描寫)하였다. 그림 내용(內容)에 의하면 “麗原에 陣을 친 蒙古軍”이란 제하(題下)에 앞에는 목판을 격자꼴로 조립한 목책(木冊)을 세우고 대진(對陣)한 상태(狀態)인데 그 정중(正中)에 백색갑주(白色甲冑)를 입은 지휘관(指揮官)인듯한 인물 앞에 태극을 선명하게 그린 분홍색 군기(軍旗)가 기각이 길게 뻗어 펴져 있고 있으며(그림 1. 참조), 한편 해상에서이 군선(軍船)에는 여러 모양의 군기(軍旗)가 고물(선미(船尾))좌우나 중앙에 돛대같이 세우기도 하고, 기수가 힘차게 휘둘러 위용(威勇)을 과시하기도 한다. (그림 3, 4참조) 그의 모양은 장방형(長方形)이나 사각형으로 그 머리에는 둥근 원문(圓文)을 그리거나 길이로 형상만이 표현(表現)하였고 구체적인 도식(圖飾)은 알아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주위에는 기각(旗脚)보다는 화도각(火焰脚)이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나. 갑주(甲冑)에 대하여



그림 3. 麗蒙軍의 戰艦

그림 3. 여몽군(麗蒙軍)의 전함(戰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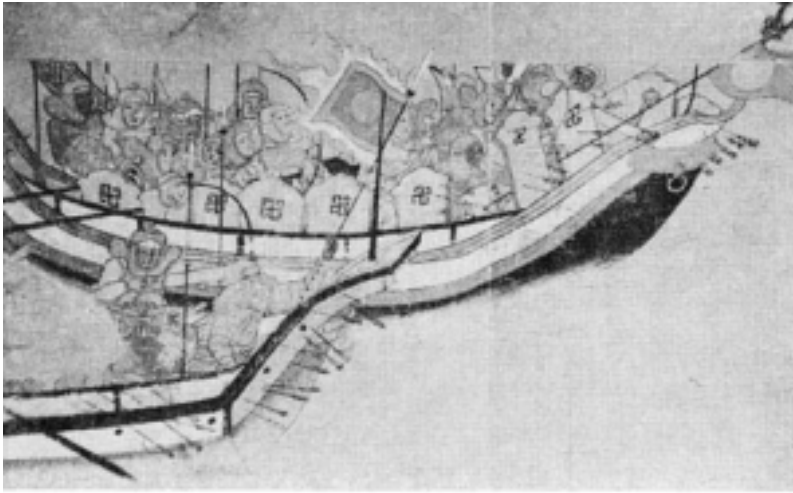


그림 4. 麗蒙軍의 戰艦

그림 4. 여몽군(麗蒙軍)의 전함(戰艦)

회사(繪詞)내용(內容)에 있어 이미 앞서서도 밝힌바 있거니와 여몽군이 일본(日本)을 정벌한 것은 계절적으로 겨울과 여름이었다. 즉 第 1次 때에는 10月 이었고, 第 2 次 때에는 하절(夏節)에 접어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개인 방어장비(裝備)인 갑주(甲冑)라 하더라도 계절의 차(差)가 있었던 것인바 대체적으로 그림에 표현(表現)된 바를 요약하면

첫째 : 편찬을 연철(連綴)한 형태(形態)의 갑주(甲冑)

둘째 : 두정(頭釘)을 설정하되 마름모꼴이나 횡선(橫線)꼴로 제조한 갑주

셋째 : 전혀 문양화(紋樣化) 하지 않은 것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투구(冑)와 갑옷(갑(甲)) 순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ㄱ) 투구(冑))



그림 5. 頭釘甲

그림 5. 두정갑(頭釘甲)



그림 6. 無紋甲

그림 6. 무문갑(無紋甲)

투구는 대체적으로 모양이 동일한 형태(形態)인바 즉 정개(頂蓋), 발(鉢), 순(順)이나 그림이기 까닭에 정개(頂蓋)의 장식(裝飾)은 구체적으로 표현(表現)되지 않았고, 이어 머리 가 들어가는 상반부의 발(鉢)은 상첨하광식(上尖下廣式)이다. 그러니까 위는 좁고 아래로 터진 모양이며 따라서 앞에는 이마위로 해가리개(전비(前毗))를 반달(半月)형으로 첩부(貼付)하였으며, 또한 목가리개(아(鋸))는 풍성하게 아래로 쳐져 어깨(견(肩))를 감싸고 따라서 안면(眼面)에서 턱밑에까지 보호하는 맨드리 이다. 한편 정개(頂蓋)에는 붉은 삭모(藥毛)와 안면(顔面) 쪽 즉 앞 해가리개와 목가리개의 앞쪽에는 털을 달아 시각적(視覺的)으로 위엄(威嚴)을 과시하는 효과를 자아 내게도 하였고, 따라서 第2次 해전(海戰)에서의 모양을 살펴보면 그 형태(形態)는 변함없고 다만 착장형식(着裝形式)의 차(差)를 발견할 수 있으니 즉 여름이기 까닭에 목가리개를 뒤로 제쳐맨다든가 혹은 아예 투구를 쓰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ㄴ) 갑옷(갑(甲))

갑옷은 대개가 좌임포형(左衽袍形)이며 옆트임은 요부(腰部)에까지 미쳤다. 다만 편찰(片札)을 연철(連綴)한 은색 갑옷차림은 마상(馬上)에 또는 옆사람에 가리웠기 때문에 그 맨드리를 분간하기 어렵고 소매가 따로부침 입을 알 수 있다. 허리에는 요대(腰帶)를 띠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찰갑(札甲)이나 두정(頭訂)을 시정(施訂)한 갑옷 외에는 모두 숨을 두툼하게 두어 만든 감(感)을 자아내어 매우 투박하게 보이고, 한편 해전(海戰)에서의 갑옷은 계절적으로, 여름이어서인지 비교적 간편한 (感)을 자아낸다. 즉 흉갑(胸甲)에 완갑(腕甲)차림이나 포형(袍形)일지라도 매우 얇은 형태(形態)임을 알 수 있다.

4. 전존유물(傳存遺物)의 실태(實態)

회사(繪詞)에 도사(圖寫)된 갑주(甲冑)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지만 과연 얼마 만 큼의 사실(事實)에 부합시켰느냐가 문제이다. 회사(繪詞)해설 내용(內容)에도 지적하였 듯이 매우 사실(事實)적이라고 표현(表現)도 하였지만 포함 몽군(蒙軍)을 직접 모르는 작가의 솜씨라고 까지도 평하기도 하였다.⁵²⁾ 물론 회화상(繪畫上)으로는 사실(事實) 그 대로를 바랄수는 없고 다만 그 윤곽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음은 고금(古今)의 회화(繪 畫)나 유물(遺物)을 통해 지실(知悉)케 하는 바이다. 그리고 문헌상으로는 고려인종(仁 宗)元(1123)年 6月 12日부터 7月 13日까지 고려(高麗)를 다녀간 서 궁(徐 兢)(1091~ 1153)에 의해 기록(記錄)된 고려(高麗)도경(圖經)에서 그 편모(片貌)나마 짐작케 할수 있으며⁵³⁾ 또한 정동군(征東軍)의 고려(高麗)주장(主將) 도원수(都元帥) 김방경(金方慶) 이 충렬왕 7(1281)年 2월에 하정사(賀正使)로 연경(燕京)에 갔을 때 궁시(弓矢)를 비롯 한 검(劍)과 백우갑(白羽甲)을 세조로부터 받았고 따라서 갑주(甲冑) 1百령(領)과 반오 (絆襖) 2백벌을 지급받아 정동(征東)하는 고려(高麗)장사(將士)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 다.⁵⁴⁾ 하지만 그때의 그 백우갑(白羽甲)은 어떠한 형태(形態)이며 또한 장사들에게 배당 된 반오(絆襖)는 어떠한 모양을 할 것인지에 대해 알길이 없다. 현재 몽군(蒙軍) 당시의 유물(遺物)이 전하기는 기병의 연환쇄자갑(連環鎖子甲)을 비롯하여 보병의 정철회(頂鐵 盔)등이 유전(遺傳)하고 또한 불란서병기전문 연구가(Charles Buttin)가 소장(所藏)한 흉갑(胸甲)은 피제(皮製)로써 그의 장식(裝飾)은 은강사(銀鋼絲)로 연관했고, 더욱 가슴 에는 은제화식(銀製花飾)인데 가슴 정중(正中)에서 합입(合衽)하게 되었다 한다.⁵⁵⁾

한편, 일본(日本) 박다(博多)에 있는 원구(元寇)기념관소장(所藏)된 투구(冑)와 개 인이 소장(所藏)한 유물(遺物)이 현재전존(傳存)되고 있는 바 이는 비단(非但) 몽군(蒙 軍)의 것이기는 하나 전술한바와 같이 구전(口傳)도 있고 특히 고려군(高麗軍)이 적급 (赤坂) 부근에 까지 육전(陸戰)에서 활약한 것을 감안(堪案) 그 맨드리를 다음에 알아 보기로 한다.

가. 용문갑주(龍紋甲冑)⁵⁶⁾

이 갑주(甲冑)는 비교적 보존상태(狀態)가 매우 좋은 상태(狀態)로서

첫째 : 투구(冑)는 상첨하광식(上尖下廣式)으로 정개(頂蓋)에는 장식(裝飾)을 껴왔던 간주(幹柱) 꽃이쇠가 달려있고 머리를 보호하는 발(鉢)의 모양은 전후정중(前後正中)에 전비(箭庇)로 조우의 첩판(鐵板)을 연결(連結)하고 전면(前面)에는 해가리개(전비(箭庇))와 미비(眉庇)가 첩부(貼付)되었다. 따라서 목가리개(아(鏹))는 좌우(左右)와 후면(後面)에 첩부(貼付)하였는데 좌우(左右)의 것은 앞 턱밑의 것을 연결(連結)시켰고 후면(後面)의 것은 뒷등으로 드리운 상태(狀態)인데 이는 앞 턱 밑의 맨드리는 회사(繪詞)의 그것 과 공통된 점이라 하겠다.

둘째 : 갑옷은 가슴 正中에 합입(合衽)하고 그 길이는 둔부(臀部)에 미칠 정도이다. 소매는 없고 다만 엄전(掩膊)이 달려있으며 가슴 中央술기를 기점으로 좌우(左右)에는 승 용(昇龍)이 시문(施紋)되었다. 이어 아랫단에는 규화문(葵花紋)이 시문(施紋)되었고 가 슴과 엄전(掩膊)에는 전체적으로 두정(頭頂)이 시정(施釘)되었는데 내부에는 편찰(片札)

이 연결(連結)된 듯 싶다. 한편 상갑(裳甲) 역시(亦是) 앞이 트인 상태(狀態)로서 두정(頭頂)을 시정(施釘)하였고 아랫단에는 갑옷 단의 모양과 같이 규화문(葵花紋)이 시문(施紋)되었다. (그림 7 참조)



그림 7. 龍紋甲冑

그림 7. 용문갑주(龍紋甲冑)

나. 철주(鐵冑)(기(其)의 1) : 운용철주(雲龍鐵冑)

이 투구(주(冑))는 일본(日本)박단(博多)에 거주하는 원등심장씨소장(遠藤甚藏氏所藏)의 유물(遺物)으로써 그의 높이는 9촌(寸) 8분으로 역시 그 제법은 상첨하광식(上尖下廣式)이다. 그의 품질(品質)은 철제(鐵製)로서 전후 正中에서 근철(筋鐵)로 마무리 하고 좌우(左右)에는 용과 해일(海日)을 금은(金銀)으로 조각하여 첩부(貼付)하였다. 정개변(頂蓋邊)과 하반부에는 화문당초(花紋唐草)를 부조(浮彫)하였으며 전비(前庇)는 중앙이 돌출한 세모꼴의 첩판을 첩부(貼付)하였다. 목가리개(아(鉸))는 좌우(左右)와 후면(後面)에 늘어진 형이나 끝부분을 둥글렸고 그 正中에는 꽃무늬가 있으며 그 주위에는 두정

(頭頂)을 시정(施釘)되었는바 이는 완전 한식(漢式) 운룡철주(雲龍鐵胄)라 한다.⁵⁷⁾ (그림 8참조)



그림 8. 雲龍鐵胄

그림 8. 운룡철주(雲龍鐵胄)

다. 철주(鐵胄) (기(其)의 2)

이 투구(주(胄))는 일본(日本) 박다(博多) 원구(元寇)기념관에 소장(所藏)된 유물(遺物)로써 그의 높이는 6촌(寸) 5分이다. 품질(品質)은 철제(鐵製)로서 모양은 호인편(胡人便)모형으로 즉 위는 좁게 둥글리고 아래로 퍼지면서 밑부분에는 처마(침(簷))를 둘러 었다. 또한 正中에서 좌우(左右)의 철판을 합하고 평형의 철은(凸垠)을 둘러린 것은 마치 연주(連珠)와도 같은 모양이며 따라서 앞 끝부분에는 호로형(胡虜形)으로 마무리 하고 양방(兩傍)에는 운뢰화문(雲雷花紋)을 은입사(銀入絲)하였는데 이는 보졸(步卒)의 투구라 한다.⁵⁸⁾ (그림 9 참조)



그림 9. 鐵 胄

그림 9. 철주(鐵胄)

라. 철주(鐵冑)(其의 3)

이 투구(冑)도 역시 同박물관소장(所藏)유물(遺物)이고 그의 높이는 1尺 8촌(寸)이며 품질(品質)은 철제(鐵製)이다. 정개(頂蓋)의 마무리 철판은 아랫쪽을 향해 화문(花紋)으로 하고 두정(頭訂)을 구 正中에 박아 마무리 하였다. 발판(鉢板)은 사주(四注)로 구분하고 전후좌우(左右)로 근철(筋鐵)을 대고 좌우(左右)에 끼워 두정(頭訂)을 시정(施訂)함으로써 마무리 하였다. 전비(前庇)는 좌우(左右)에서 점차 正中으로 그 너비를 확장하여 능형(稜形)으로 첨부(貼付)하였고 그 밑으로 매달린 미비(眉庇)는 하단에 안공(眼孔)을 좌우(左右)에 뚫었는바 이는 매우 그 길이가 길며 따라서 좌우(左右)나 그 후면(後面)에 달려야 할 목가리개(아(鏑))는 파손되었는데 이는 기병용의 투구로 여겨진다.⁵⁹⁾ (그림 10 참조)



그림 10. 鐵 冑

그림 10. 철주(鐵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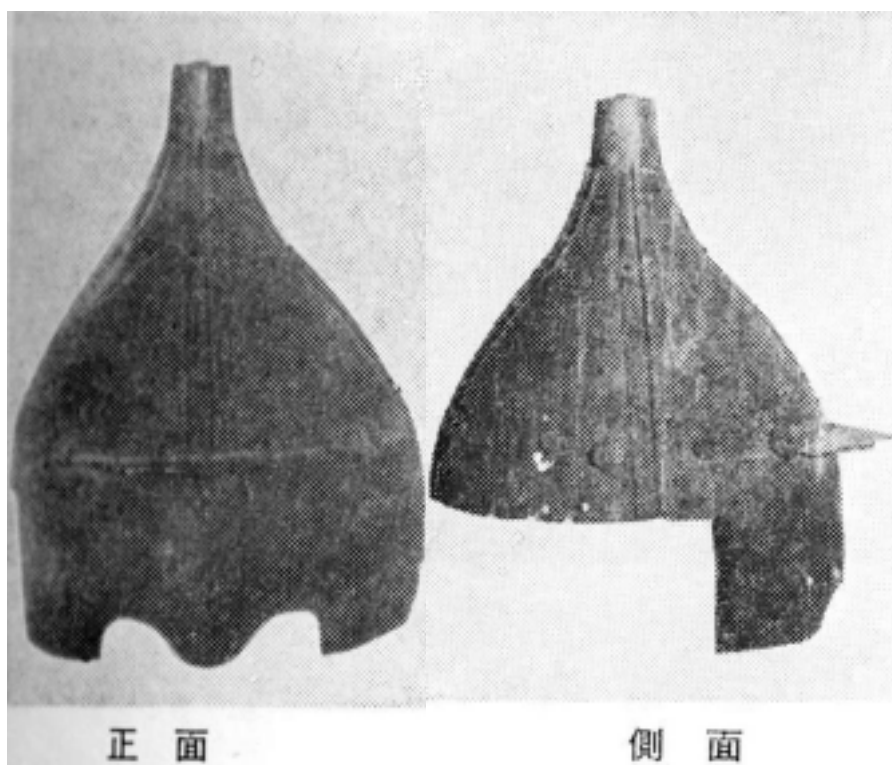
마. 철주(鐵冑)(其의 4)

이 투구(冑)는 머리에서 밝힌바와 같이 일본(日本) 동경소재 한국연구원장이 수집한 유물(遺物)이라 전한다. 품질(品質)은 수철제(鐵製)로서 높이는 20cm에 이르고 지름은 22.5cm이다. 정개(頂蓋)는 원형으로 상부(上部) 주위는 모를 채고 正中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보아 정개(頂蓋)장식(裝飾)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밑으로는 사주(四注)의 정개(頂蓋)상부를 속으로 넣어 마무리한 상태(狀態)인데 그 밑 부분에는 화판(花瓣)으로 처리하고 두정(頭訂)을 시정(施訂)하였는바 이는 철주(鐵冑) 기(其)의 3 맨드리와 같다. 발(鉢)의 구조도 전후좌우(左右)에 철판을 위는 좁고 아래로는 퍼진 모양인데 전후좌우(左右) 사주(四注)에는 지름 2.5cm의 근철(筋鐵)을 正中에 양출(陽出)

된 조선(條線)이 사이하여 좌우(左右)로는 판철(板鐵)을 물려 두정(頭訂)으로 고정하였다. 전비(前庇)는 正中에 너비 3.6cm의 능형(稜形)을 최고로 하여 좌우(左右)로 좁혀 삼등(三稜)으로 처리하였고, 그의 들림 길이는 17.5cm에 이른다. 또한 미비(眉庇)는 전비(前庇) 밑으로 더욱 후면(後面)을 감싸 처리하였는바 그의 길이는 10.8cm에 이르고 또한 그의 들림 길이는 30cm에 이른다. 그리고 앞면 正中 밑으로는 양쪽 눈에 알맞게 안공(眼孔)을 뚫었고 목가리개 연철부분(蓮綴部分)은 전비(前庇)에 이어 그 밑으로 미비(眉庇)와 겹치게 되었고 현재 연철두정(蓮綴頭訂) 12개가 그대로 박혀 있으며 또한 그 밑 부분에는 소형의 못구멍이 대선(帶線)을 이룬 상태(狀態)이다.

이 투구는 그 구조난 형태(形態)로 보아 철주(鐵冑) 其의 3과 별차(別差) 없는 것으로 기병용(騎兵用)인상 싶다.

그림 11. 철주(鐵冑)



정면(正面)

측면(側面)

맺는 말

이제까지 몽군(蒙軍)의 침략(侵略)으로부터 삼별초(三別抄)의 항쟁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第 1, 2次に 선(巨)한 정동(征東)경위 또한 회사(繪詞)에 묘사(描寫)된 각종장비(裝備), 당시로부터 현금(現今)까지 전존(傳存)되는 유물(遺物)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회사(繪詞)에 도사(圖寫)된 내용(內容)과 유물(遺物)

과의 실제거리는 너무나도 좁혀지지 않음을 실감케 하거니와 즉 회화상(繪畫上)으로는 실물 그대로를 묘사(描寫)표현(表現)하기란 매우 힘겨운 일일뿐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물건자체의 사생적(寫生的) 표현(表現)을 구(求)한 것이 아니라 요청자나 작가 나름대로의 회화적(繪畫的) 효과만이 추구하였기 까닭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재 전존(傳存)되는 여러 형태(形態)의 회화에서도 한결같은 문제인바 즉 의궤도(儀軌圖)나 능행도(陵行圖) 그리고 동가도(動駕圖)의 경우에서와 같이 무인(武人)의 투구를 예를 든다면 다만 그 윤곽만이 표현(表現)할 뿐 구체적으로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개(頂蓋)의 장비(裝備), 상반부(上端)의 문양, 전비(前庇)나 미비(眉庇)의 조각 그리고 목가리개(아(鋸))의 색상등이 표현(表現)되지 않음과 같은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본 회사(繪詞)에서 얻어진 결과(結果)로는 그의 윤곽만을 판단케 하였고 또한 지역적인 면을 고려한 문제 즉 한 대지방(寒帶地方)이기 때문에 개인장비(裝備)인 갑주(甲冑)의 형태(形態)가 타국제(他國製)에 비해 둔(鈍)(속에는 방한(防寒)이나 병장기(兵仗器)로 찢러도 찢거나 들어가지 않게 함)한 감(感)을 자아내게 하는데 이는 1, 2次に 환(巨)해 고려(高麗)나 강남군(江南軍)이 참전하였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차(差)를 고려(考慮)치 않은상 싶다.

또한 전존(傳存)되는 유물(遺物)에 대해서 살펴 보면 갑옷은 단 한벌이기 까닭에 그 형태(形態)에 관해서 비교 할 수 없고 다만 투구가 몇점 있으나 한결같이 同一한 형태(形態)가 아니고 그 맨드리의 차(差)를 두고 있다. 물론 이는 그 쓰임에 따라 차(差)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계급에 의한 그 모양의 구별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이 몇점의 투구만으로 그 이후의 고려군사제도(高麗軍事制度)에 특히 개인방어장비(裝備)에 대해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가 요구되는 문제로 여기는 터이다.

주(註)

1) 周 緯著 中國兵器史稿(1957年 7月 北京 新華印刷廠刊) 第78圖版參照

2) 小松茂美著 蒙古襲來繪詞(昭和 53年 10月 5日 日本 繪卷大成 14)

本書에 따르면 이 그림은 上下卷으로 된 두루마리에 當時의 戰況을 原色으로 圖寫하여는 바 그 執筆內容에 따르면

첫째, 小松茂美의 圖版解説

둘째, 源 豊宗의 解説(蒙古襲來繪詞雜考)

셋째, 秋野三七彦의 竹崎季長繪詞の研究史 등으로 區分되었다.

3) 古宮圖像選萃(中華民國 60年 12月 古宮博物院刊)

作品解説

成吉斯汗(1206~1227在位)

元나라 開國의 君主이다. 姓은 奇涯溫이요 이름은 鐵木眞이며 雄略이 있어 用兵을 잘 했다. 그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蒙古의 族長이 되고 韃靼, 奈曼의 諸不足을 平定하고 宋의 開禧 2(1206)年 皇帝의 位에 올랐다.

4) 前掲

太宗(1229~1241)

太祖의 第3子, 이름은 窩濶台, 그의 사람됨은 忠恕 極히 寬宏하다. 太祖는 西方의 諸國을 略定할 힘이 있었으나 그는 太祖의 代를 이어 宋과 힘을 합해 金나라를 滅하고, 또한 將兵을 派遣하여 露西亞를 討伐하는 한편 波蘭, 匈牙利까지 侵攻하였다.

5) 薩里台

撤禮塔이라고도 한다. 高宗 18(1231)年 蒙古의 使臣 禮古麗가 高麗사람에게 被殺되었다고 의심하여 쳐들어왔다가 講和로 그 이듬해 1월에 達魯花赤 72명을 두고 돌아갔다 그 해 8월에 다시 侵入하여 龍仁 處仁城에서 僧 金允侯의 화살에 맞아 被殺되었다.

6) 金慶孫(? ~1251)

初名은 雲來, 本貫은 慶州, 平章事 台瑞의 아들, 高宗 18(1231)年 靜州分道將軍이 되었고 때에 蒙古軍이 侵入하자 12명을 거느리고 奮戰擊退하였고, 이어 龜州에서는 兵馬使 朴 犀將軍 揮下에서 敵을 擊退하였으며, 高宗 20(1233)년에는 大將軍知御史臺事를 거쳐 高宗 24(1237)년에는 全羅道指揮使가 되어 羅州城에 있을 때 百賊都元帥라고 自稱한 李廷年을 掃蕩했고 後에 벼슬이 樞密院副使에 이르렀다.

7) 閔曦

高宗 18(1231)年 北界分臺御史로 나가 蒙古軍의 侵略에 對處하였고 이듬해 大將軍에 昇任되어 西京巡撫使가 되었다. 高宗 20(1233)年 北界兵馬使로 있을 때 西京郎將 洪福源(1206~1258)이 畢賢甫(? ~1233)와 宣諭使인 大將軍 鄭毅(? ~1233) 朴錄全(? ~1233)을 죽이고 反亂을 일으키자 崔瑀(?~1249)의 蒙兵 3千을 이끌고 이를 討伐 西京을 廢墟로 만들었다. 뒤에 知樞密院事에 이르렀다.

8) 李熙昇編 국사대사전(民衆書館 1978. 7. 5刊)

“元나라의 벼슬이름, 우두머리의 뜻”이라 하였는바 때에 이는 主要州縣에 配置하였다 하였으니 아마도 때의 監督官인 듯 하다.

9) 金允侯


일찍이 꿈이 되어 白峴院에 있다가 蒙古軍이 高宗 19(1232)年 8월에 侵入하자 處仁城에서 蒙將 撤里台를 활로 쏘아 죽이자 그 功으로 上將軍에 任命되었으나 이를 辭讓했다. 後에 攝郎將이 되었고 또한 忠州山城 防護別監이 되었다. 이 때 蒙軍이 再侵하여 城을 包圍하자 軍民이 一心하여 70餘日동안 防禦끝에 이를 擊退했다. 이어 監門衛上將軍이 되고 뒤에 東北面 兵馬使가 되었으나 그 때 그 곳이 敵軍駐屯하여 있었으므로 赴任하지 못하였다. 元宗때 樞密院副使에 이어 守司空右僕射로 致任했다.

10) 唐古

蒙古의 將軍이다. 高宗 18(1231)年 澈里台와 함께 侵入했고 또 同王22(1235)년에는 洪福源을 앞세워 來侵했었다.

11) 韓國史(震檀學會 4292. 10. 20. 刊) 高宗 25年條參照

12) 金寶鼎

 蒙軍의 侵入으로 高宗 21年과 同王 25年 使臣으로 蒙古에 가서 蒙軍의 撤兵을 要請하여 물러가게 했고 同王 28年 永寧公 緯이 蒙古에 入質할 때 隨行했고, 同王38(1251)年 上將軍으로 또 蒙古에 使行했으며, 同王 46(1259)年 樞密院副使로서 太子備(元宗)을 따라 蒙古에 갔으며 元宗 1年 (1260)에는 知門下省事 史部尙書가 되었다.

13) 宋彦琦

本貫은 鎭川, 中書侍郎 平章事 恂의 아들, 어릴 때부터 文章에 能하여 이름을 떨쳤고 高宗때 文科에 及第하여 全州縣令이 되었다. 都兵馬錄事, 監察御使가 되고 高宗 25年을

始點으로 4次에 巨해 蒙古에 가서 講和를 交渉하였다. 後에 判將作監事에 이르렀고 43歲를 一期로 卒했다.

14) 永寧公 縉(1233~1283)

顯宗(1010~1031)의 後孫, 淸化候 璟의 子, 永寧公에 封해지고 高宗 28(1241)年 王命으로 王子를 가장하고 朮朮로 蒙古에 갔다. 그 後 그 事實이 發覺되었으나 性格이 溫만하여 信任을 받기도 하였고 또한 高麗侵攻計劃을 事前에 探知하여 本國에 알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蒙軍과 더불어 高麗來侵에 參與하기도 하였고 安撫高麗軍民總管이 되어 2千餘戶를 分領받아 藩主를 다스렸으며 元宗 11(1270)年 林 衍(? ~1270)의 反亂으로 派兵要請을 받은 元나라 世祖(1260~1294)의 命으로 軍士를 乞하고 支援하기도 하였다.

15) 柳 璈(1211~1289)

字는 天年, 本貫은 文化, 政堂文學 公權의 孫子, 文科에 及第한 後 大司成이 되고, 때의 實權者인 崔 沆의 信任을 받았다. 그러나 崔 璈가 實權을 掌握한 後로는 그의 行悖가 甚해 高宗 45年 別張 金 俊과 더불어 崔 璈를 죽이고, 實權을 王室에 돌렸다. 그래서 左右衛上將軍에 昇任, 右副承宣을 兼任하고 推誠衛社功臣의 號를 받았다. 그 後 樞密院副使를 지냈으며 高宗 46(1259)年 6月 高宗이 그의 집에서 崩御했다. 元宗 3年 門下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가 되었고 林 衍이 金 俊을 죽이고 功臣이 된 것을 비난하다 黑山都에 流配되기도 하였다. 後에 世子傳 贊成事判典理司事로 또한 僉中贊等을 歷任했다.

16) 洪奎(? ~ 1316)

初名은 文系, 本貫은 南陽 同知樞密院事 縉의 아들 忠肅王妃 明德太后的 아버지, 元宗 때 御使中丞이 되었으며, 元宗 11年 王이 元나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阻礙한 林維茂가 排斥하려 하므로 大義를 위해 宋松禮(? ~1289)와 함께 三別抄의 힘을 빌어 이를 죽였다. 이어 左副, 承宣, 樞密院副使등에 昇任하였으나 모두 辭退했다. 그 後 忠烈王 28(1297)年에 判三司事守司徒領景靈宮事가 되고 商議僉議都監事에 이르렀다.

17) 承花候 溫(? ~1271)

王族 淸化候 璟의 아들, 永寧公 縉의 兄, 元宗 11(1270)年 三別抄의 亂 때 江華에서 將軍 裴仲孫등에 依해 王에 推戴되었으나 그 後 亂軍이 江華를 버리고 全羅珍島에 옮겨 抗戰하였으나 다음해 官軍과 蒙軍에 의해 大敗하므로써 아들 桓과 함께 殺害 當했다.

18) 高麗史節要卷之18 元宗順孝大王 1

元宗 11年 庚午 6月 條

19) 前揭註 參照

20) 前揭註 參照

21) 高麗史節要卷之19 元宗順孝大王 1

元宗12年辛未正月條

22) 삼별초의 항몽투쟁사(제주도 1978. 5. 31. 刊)

本書는 當時 文化財課長 洪淳晚先生의 執筆로 蒙古軍의 侵略과 三別抄軍의 抗爭內譯을 昭詳히 著述하였는바 本稿의 主要部分을 參考하였음을 밝힌다.

23) 新增東國輿地勝覽第 32卷(東國文化史 1958. 8. 5刊)

昌原都護府山川 合浦條參照

24) 가. 高麗史節要卷之18 元宗 7年條

- 나. 高麗史節要卷之18 元宗 8年條
- 25) 高麗史節要第19卷 元宗順孝大王
元宗 12年條
- 26) 池內宏著 『元寇の 新研究』
池內宏氏は 元史 卷208 原文을 다음과 같이 引用하였다. (至元十一年 3月 日本傳條)
「鳳州經略使忻都高麗軍民總管洪茶丘以 千料舟拔都魯輕疾舟汲水小舟名三百共九百艘」
- 27) 高麗史 28 世家28 忠烈王 卽位年10月乙巳條 및 前掲註 23參照
- 28) 가. 日本民族雄飛五大州(釜山日報 昭和 6年 6月 21日刊)
第 3 章 近古時代(自至 約 1700~2000年) に於ける
海外雄飛の 狀況 第 6 國難蒙古襲來(北條時宗)參照
나. 高麗史 28 世家 28 忠烈王 卽位年 11月 己亥條
다. 池內 宏著 元寇の 新研究」(昭和 6年 8月 8日 東洋文庫刊) 第 7 章 元の第 一次
日本征伐一文永の役一條參照
- 29) 前掲註 “나”항 忠烈王卽位年 12月 庚午條 參照
- 30) 高麗史 28 世家 28 忠烈王元年 乙亥 10月壬守條
- 31) 前掲註 11月 癸巳條
- 32) 高麗史節要 第 19 忠烈王 3年 2月條
- 33) 前掲註 30 忠烈王3年 丁丑4月 丁卯條
- 34) 池內 宏著 『元寇の 新研究』
第 9 章 再度の 日本征伐の 遂行せらるるまご 參照
- 35) 高麗史 29 世家 29 忠烈王 5年 己卯6月 新丑條
- 36) 高麗史節要 卷 20 忠烈王 7년 6月條
- 37) 前掲州 35 忠烈王 6년 庚申11月 己酉條
때에 右承旨 趙仁規 (1227~1308) 大將軍 印 侯 (1250~1311)를 元에 보내 中書省에
報告한 內容이고, 또 한 正規軍의 差出內容은 京內 : 2, 500, 慶尙 : 2, 390, 全羅 : 1,
880, 忠淸 : 1, 900, 西海 : 190, 交州 : 160, 東界 : 480, 計 : 9500이나 여기에 耽羅戍
兵 1千名이 包含됨으로 餘裕있게 計算하여 1萬이라는 數字가 있는 것으로 推算됨
- 38) 前掲註 35 忠烈王 6年庚申 8月 乙未條
- 39) 前掲註 35 忠烈王 7年丙寅, 庚申, 癸未條
- 40) 이 出征日程에 對해서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는 忠烈王7年辛巳5月 戊戌條로 卽初 4日
로 明記되었으나 池內 宏著 『元寇の 新研究』에는 5月初 3日로 發表되었다. 그 出處
가 注目되는 바이다.
- 41) 前掲州 35 忠烈王 7年 辛巳 5月 癸未條
- 42) 前掲州 34 第10章 元の第2次 日本征伐
弘安の 役條에 따르면 世系村 大明浦의 所在地는 卽 對馬島의 佐賀村의 海邊을 指摘한
것이며 따라서 日字도 5月 21日을 主張하고 있다.
- 43) 前掲註 34 參朝
- 44) 前掲註 35 忠烈王 7年辛巳6月壬申條
- 45) 前掲註 35 忠烈王 8年壬午6月己丑條
- 46) 前掲註 35 忠烈王 7年辛巳11月壬午條
- 47) 荻野三七彦 : 蒙古襲來繪詞に就での疑と其の

- 解釋(歷史地理第59卷第2號：昭和7年(1932)2月刊)
- 48) 蒙古襲來繪詞(日本繪卷大成14昭和53年10月5日)
 本書解説의 執筆은 다음과 같다.
 가. 源 豊宗 「蒙古襲來繪詞」雜考
 나. 荻野三七彦 「竹崎季長繪詞」의 研究
 다. 小松茂美 「蒙古襲來繪詞」詞書釋文
- 49) 忠烈王元年乙亥11月癸巳, 同3年丁丑4月丁卯 同4年戊寅 2月癸未, 同 6年庚申2月己卯條
- 50) 拙著 韓國의 火砲
 3. 火藥의 傳來條
- 51) 高麗史卷11 兵志 1 恭愍王 5年丙申 9月條 및 前掲註參照
- 52) 前掲註48 源 豊宗의 作風論參照
- 53) 徐 棘著 高麗圖經卷11 仗衛條
- 54) 高麗史節要卷20 忠烈王 7年辛巳 2月條
- 55) 周 緯蓄 『中國兵器史稿』
 第3章 鐵兵肆 元代防禦武器條
- 56) 世界歷史シリーズ 12 モンゴル帝國參照
- 57) 前掲註55 第 78 圖版參照
- 58) 前掲註53 參照
- 59) 前掲註53 參照